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아니다. <19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둘 흡아매고 있는 그릇된 사회체도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권력의 횡포 등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태호 · 중앙미술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송은영展

3.5~11 갤러리 아트누스

액자에서 그림이 미끄러져 나왔다. 아니 어쩌면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 액자가 흘러내려 바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그림은 액자가 만들어 주는 보호막을 벗어 던졌고, 액자는 더 이상 그림에 기생하기를 거부하였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액자와 그림의 결별. 그러나 이로 인해 액자와 그림 각각의 독립적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송은영의 일곱 번째 개인전 <따라잡기/꺼어들기>는 꼭 죄어진 나사를 풀어 버리듯 '하나'라고 믿고 있던 것을 해체해 새로운 '두개'를 얻어냈다. 재물 시절부터 자신의 얼굴과 거울을 이용해 화면 속의 작가시선과 관객시선의 조우, 거울 위에 비친 이미지와 실제의 대면 등 이항대립적 구조에서 경계와 소통의 흔적을 추적하던 송은영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해체의 강도를 높였다.

전시는 '따라잡기'와 '꺼어들기'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따라잡기'. 작가는 미리 설치된 은증판 밑앞에서 서서 그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그림 그리는 모습을 따라 그린다. 실루엣이 완성되면 이번엔 한 발 옆으로 옮긴 뒤, 앉아서 그림 그리는 모습을 그린다. 이와 같은 자기 이미지 따라잡기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낸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릴 이미지의 잔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작가는 서둘러 자신이 만들어 낸 움직임을 크로키한다.

이에 반해 '꺼어들기'는 거울 위에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밀착된 이미지를 인화한 뒤 밀착된 부분의 윤곽을 아크릴을 이용해 색채를 입히며 경계선을 만들어낸다. 그런 가운데 화면 밖에서 이러한 꺼어들기를 포착하는

카메라가 거울 표면에 비치는데, 이 카메라의 주인공 역시 송은영 자신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다르려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 관객과 작가사이의 '거리' 혹은 '차이'의 극복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미술이 만들어 낸 형식의 탈피인가? 필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울에 주목한다. 거울은 실재를 흡수하여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움직임을 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도구이다. 또한 거울은 이미지를 반사시키고 굴절시킴과 동시에 이를 흡수하고 공간을 확장시키는 재료적 특성과 더불어, '따라잡기'와 '꺼어들기'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게 된다. '따라잡기'의 경우 관객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게 되는데, 거울 표면에 자신의 실루엣만 남긴 작가의 의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관객은 순간 작가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곤 화면 속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을 마주치며 작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뒤쫓아 간다. 반면 '꺼어들기'는 사진과 회화, 형식과 내용, 주제와 객체, 작가와 관객사이의 경계선을 비집고 들어간다. 절린 액자틈을 넘어 새어 나온 그림과 그 그림위를 비집고 나오려는 작가의 얼굴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 일그러져 있다. 얼굴 굴곡을 따라 흐르는 황금색 외곽선이 그 저항의 크기를 말해준다.

송은영의 <따라잡기/꺼어들기>는 관객이 작가의 위치에 서기를 유도한다. 다시 말해, 작가=관객의 공식에 근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시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떠한 형식으로도든 작가의 이미지, 관념, 논리, 구조의 그림들을 관객의 그것들에 각인시켜 작가의 관념과 관객의 관념이 서로 일치하기를 욕망한다. 그러나 그 바람은 허락되지 않은 채 시간성의 궤도 위에 흔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어쩔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면서 '따라잡기'와 '꺼어들기'를 시도하는 송은영의 이번 작품은 형식에 대한 자만은 형식 외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며 경계와 형식의 틀을 넘나든다. 송은영의 작품에서 '따라잡기'와 '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서두에 이야기한 형식의 해체를 명심하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벗어난 액자를 보자. 그것은 이미 액자가 아닌 하나의 그림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태형 · 갤러리 아트사이드 큐레이터



송은영 <따라잡기/꺼어들기> 2004 전시광경